

무안기업도시 좌초 위기

중정부 '700억 출자' 승인 보류... 자금 확보 못해 개발 차질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던 중국 측의 투자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8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려던 당초의 일정이 백지화됐다. 이와 함께 중국측의 투자가 불투명해지면서 개발계획 축소 방안이 검토되는 등 무안을 국내 최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개발하려는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달 31일 전남도와 무안군에 따르면 중국 측 자금 출자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한중국제산업단지(주)가 "중국 기업이 700억 원을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초기 출자하려 했으나 중국정부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8월 말로 예정된 출자금 납입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최근 밝혀왔다.

기업도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자금이 전액 납입되어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무안군이 8월 말까지 건교부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려던 당초의 일정 역시

지킬 수가 없게 된 셈이다.

한중국제산업단지(주)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출자할 예정이었던 1천540억원 가운데 중국 기업 출자분 700억 원에 대해 중국 정부가 투자자 변경, 서류보강 등을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8월 말까지 출자금을 모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처럼 출자금 확보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현재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출자 예정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와 무안기업도시개발(주) 등 2개 SPC(특수목적법인) 가운데 출자금이 확보된 곳부터 출자금 규모에 맞춰 개발구역승인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무안군에 요청했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무안기업도시 개발예정지인 무안을, 청계·현경·방음면 일대 1천220만 평 가운데 중국 측이 원하는 600만 평을 제외와 나머지 620만 평만 먼저 개발구역으로 승인해준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무안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축소되

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개 SPC에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출자금을 확보한 곳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도록 무안군에 요청했다"며 "사업 축소라기보다는 전체 개발예정구역을 2개 정도로 나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金부총리 거취 오늘 중대고비

韓총리 '교육위 청문회' 뒤 입장 표명키로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제출 의혹과 관련,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정 차권의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선 사실 규명' 입장을 고수, 팽팽한 힘겨루기 계속되고 있다.

특히 1일 김병준 부총리가 출석할 예정인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는 사실상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도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를 지켜

본 뒤 각료 제청권자인 총리로서 김 부총리와 관련된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야4당은 김병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한편, 1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김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김 부총리에 대한 우회적인 사퇴 압박에 나서는 등 정치권 전반이 김 부총리의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사실 관계 규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김 부총리 퇴진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의 결과에 따라 김 부총리의 퇴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림역을 친 도로 건너편에서 평양 시민들이 수해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비교적 견고한 평양시내의 하천 시설물들도 다수 유실됐다. <정영재씨 촬영>

미사일 사태·홍수 피해 이후 북한은...

짓누르는 침묵... 평양도 큰 상처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북한의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 까지 일주일동안 평양을 다녀온 정영재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운영위원장이 전하는 북한 현지 상황을 실는다. 정 위원장은 남북 농업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원예 농업 협력사업 중간점검차 평양을 방문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영재씨 방문기

"남쪽 피해 얼마나" 시민들 되레 南 걱정

지난 6년 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드나들면서 이번처럼 긴장해 본적이 없었다. 술한 난관 속에서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왔는데, 미사일 발사 같은 요인에 의해 잘풀리지 않을까하는 걱정이었다. 또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도

마음을 무겁게했다.

지난달 22일 평양공항에 도착하니 민화협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어느 때처럼 다정하게 맞아주었다. 그러나 화제는 수해를 위로하는 말로 시작됐다. 그들은 "최근 10년만에 이렇게 큰 비는 처음 보았다. 평양시내 피해도 상당하다"며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지



었다. 그러면서 "남쪽의 피해는 얼마나 되느냐"고 되레 걱정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동포의 정이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서자 푸르러야 할 평양교외의 논은 시냇길 황토밭으로 변해 있었다. 장맛비가 얼마나 심하게 활췌고 갔는지 어떤 곳은 논둑이 고 밭 이랑인지 혼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2면으로 계속>

광주·전남 교육위원 16명 선출

당선자 명단 ▶ 5면

4년 임기의 제5대 광주·전남 교육위원 16명이 선출됐다.

31일 광주·전남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 결과 광주는 제1선거구에 박기훈(64·전 전남중 교장), 장휘국(55·현 교육위원), 전원범(62·전 한국교

총회장 직무대리)씨 등 3명이, 제2선거구에 문동주(65·전 백일초 교장), 서재의(54·전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장), 윤봉근(48·현 교육위원), 이승연(63·전 시부교육감)씨 등 4명이 각각 선출됐다.

전남의 경우 제1선거구에 나승욱(63·전 여수교육장), 유제원(61·현 교육위원)씨 등 2명이, 제2선거구에 민병홍(46·현 교육위원), 채귀석(64·전 여수양지초 교장) 등 2명이 각각 당선됐다. 제3선거구에는 김병환(61·현 교육위원), 한이훈(61·전 교육위원)씨 등 2명이, 제4선거구에는 서건용(66·현 교육위원), 서기남(62·전 여수교육장), 오병인(62·전 목포교육장)씨 등 3명이 각각 선출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외래(시간)교수 초빙공고

1. 남부대학교에서는 2006학년도 2학기 외래(시간)교수를 초빙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남부대학교 홈페이지 (www.nambu.ac.kr)를 참조하십시오.
3. 접수기간 :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총무처 대학원 학·비서과 장학팀

조세부담률 19.6%

미국·일본 보다 높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6%로 미국, 일본 보다 높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8.2%보다 낮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의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으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한국에 관한 실용경제정보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가이드에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9.6%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1인당 세부담액은 33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연남뉴스>

포항항을 출발 5시간 40분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생원로본관 062-226-4111 ▶ T.062-226-4200-4

새로 맞이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생원로본관 062-226-4111 ▶ T.062-360-3000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 무관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질환의약품

- 카탈라 점안액
안과 질환에 대한 정성스레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눈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성스레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 신도콜 류스안연액
안과 질환에 대한 정성스레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성스레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 비어콜 점안액
안과 질환에 대한 정성스레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성스레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고객을 위한 전화: 090-022-2200 (주선: 4월) 평양본부 고객 센터

국제약품이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열매의 씨앗이 소망이 되고, 열매는 사랑과 희망을 주며 자라납니다.